전신과 시장의 속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870~1871년의 케이블

해저 케이블로 싱가포르를 연결하려던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859년 바타비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부설된 회선은 불과 며칠 동안만 작동했습니다. 운영자들은 높은 저항을 극복하려고 추가 전압을 걸었고, 그 결과 회선은 고작 4,359단어를 전송한 뒤 파손되었습니다.[1] 지속적인 연결은 10년 뒤 영국의 케이블 사업가 존 펜더(John Pender)가 지배하는 회사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루어졌습니다.

1869년 10월 마드라스에서 페낭을 거쳐 싱가포르까지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영국 인도 확장 전신회사(British Indian Extension Telegraph Company)가 등록되었고, 각 구간은 1870년에 부설되었습니다. 최초 연결의 정확한 날짜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한 자료는 싱가포르의 연결일을 1870년 12월 16일로 제시하는 반면, 1894년의 회고 자료는 싱가포르와 런던 사이의 케이블 통신이 1871년 1월 4일 처음 개통되었다고 기록합니다.[2] 당대의 개관 자료들은 인도와 유럽으로부터의 전신 서비스가 1870년 싱가포르에 도달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현대의 서술은 마드라스–싱가포르 케이블의 개통을 1871년으로 봅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케이블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단순한 종착지 이상이었습니다. 1871년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케이블이 홍콩, 사이공, 포트다윈에 도달했고, 1872년에는 다윈이 오스트레일리아 전신망에 연결되었습니다.[4] 런던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중국, 유럽과 네덜란드령 동인도 사이의 전문이 싱가포르를 거쳐 갔습니다. 케이블 회사들의 중계소, 통신원, 수리선은 항구 경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들은 빠르게 통합되었습니다. 1872년 펜더는 여러 회선을 결합해 동방전신회사(Eastern Telegraph Company)를 설립했습니다. 1873년에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전신회사(British Australian Telegraph Company), 영국 인도 확장 전신회사, 중국 해저전신회사(China Submarine Telegraph Company) 등 3개 회사가 합병되어 동방 확장 오스트랄라시아 중국 전신회사(Eastern Extension Australasia and China Telegraph Company)가 되었고, 이 회사가 인도 동쪽의 케이블을 운영했습니다.[5] 케이블 및 무선 통신에 관한 제국회의를 거쳐 영국의 케이블 회사와 무선 회사들은 1928년 단일 사업자로 합병되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임페리얼 앤드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스(Imperial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Ltd)였습니다. 이 회사는 1934년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able and Wireless Limited)라는 이름을 채택했고 1947년 국유화되었습니다.[6]

편지에서 전신으로

전신 이전에 싱가포르의 상인은 도착하는 데 몇 주가 걸리는 편지와 신문을 통해 런던의 가격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산물을 사들여 자기 계산으로 또는 위탁으로 선적했고, 몇 달 뒤에야 결과를 알았습니다. 제A편 제IV장과 이 편 제II장에서 서술한 에이전시 하우스들은 바로 이러한 정보 격차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런던의 거래처와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수익원이었고, 자본력 덕분에 긴 항해와 느린 정보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케이블은 이 논리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런던의 구매자는 수량, 품질, 가격을 명시한 주문을 전신으로 보내고 하루 안에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인들은 주석, 후추, 훗날의 고무 가격을 민싱 레인(Mincing Lane)의 중개인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위탁 무역은 확정 주문에 따른 무역과 선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요할 때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자 창고에 쌓아 두는 재고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보다 먼저 가격을 아는 데서 오던 마진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나 가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신은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가격이 공개되고 주문이 전신으로 들어오자, 믿을 만한 거래처를 둔 소규모 회사도 기존 상사와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귀항 무역을 하는 수출입 회사의 수는 1897년 약 20개에서 1908년 약 60개로 늘었습니다.[7] 치앙은 해운동맹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 중 하나를 이러한 회사 수의 증가에서 찾았습니다. 회사가 늘어나면서 소수의 대형 상사와 맺은 기존 리베이트 협정을 옹호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신과 금융시장

금융에 미친 영향도 무역에 미친 영향만큼 컸습니다. 이 편 제II장에서 살펴보는 환은행들은 이제 싱가포르, 런던, 캘커타, 홍콩 간 전신 송금의 환율을 제시하고 지점 간 잔액을 하루 안에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씩 걸려 이동하는 환어음의 환위험은 훨씬 짧은 전신 송금의 위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시아 외환시장 간의 차익거래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스프레드를 좁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은 통화가 파운드화와 교환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고, 이 기능은 훗날 외환시장에서 싱가포르가 맡게 될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케이블은 정치적 사건과 위기의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런던의 가격 폭락, 유럽의 전쟁, 중국의 혁명 소식이 몇 시간 안에 싱가포르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은 더 통합되었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전달되는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효과는 지금까지 싱가포르가 처한 위치의 특징으로 남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아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가치는 세계 시장과의 연결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은 세계 시장의 동요도 함께 전달합니다. 제D편 제II장과 제III장은 20세기 후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때와 지금의 허브

1879년에는 지역 전화 서비스가 뒤를 이었고, 1882년에는 조호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더 오래 남은 유산은 케이블 허브 그 자체였습니다. 한 현대의 관찰자는 1871년을 싱가포르가 케이블 허브로 출범한 해라고 표현했으며, 싱가포르는 그 이후 줄곧 이 역할을 지켜 왔습니다.[8] 오늘날 싱가포르에 상륙하는 해저 광케이블과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데이터센터는 전신 회사들이 처음 놓은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K편 제IV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연결성이 금융 중심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주

1. Ulrich Speidel, “A short history of Singapore’s role in the cable world”, APNIC Blog, 2022년 9월 12일: 1859년의 바타비아–싱가포르 케이블은 “lasted only a few days following an ill-conceived attempt to unblock its resistance by applying extra voltage”; 총 전송량 “only 4,359 words”. ↩

2. “The Eastern Telegraph Company’s Silver Jubilee”, 1894년, atlantic-cable.com(Article/1894SilverJubilee)에 재수록: 싱가포르와 런던 간 통신은 1871년 1월 4일 수요일 처음 개통; 영국 인도 확장 전신회사는 1869년 10월 등록; 마드라스–페낭 및 페낭–싱가포르 구간은 1870년 부설; 다른 자료는 1870년 12월 16일을 제시. ↩

3.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Singapore*, “Colonial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elegraph service from India and Europe reached Singapore in 1870”; 전화 서비스는 “installed in 1879 and extended to Johore in 1882”; Ulrich Speidel, “A short history of Singapore’s role in the cabl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world", APNIC Blog, 2022년 9월 12일: "In 1871, the telegraph cables from Madras to Singapore went live". ↩

4. Ulrich Speidel, "A short history of Singapore's role in the cable world", APNIC Blog, 2022년 9월 12일: 1871년 싱가포르발 회선이 홍콩, 사이공, 다윈까지 연장됨; 다윈은 1872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내망에 연결됨; 저자는 1871년을 "Singapore's inauguration as a cable hub"라고 부름. ↩

5.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목록 항목 CLC/B/101-18, "Eastern Extension, Australasian and China Telegraph Company Limited"(AIM25 경유): 1873년 존 펜더가 British Australian Telegraph Company Ltd, British Indian Extension Telegraph Company Ltd, China Submarine Telegraph Company를 합병하여 설립. ↩

6. Wikipedia, "Cable & Wireless plc"(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펜더는 1872년 동방전신회사를 설립; 이 회사는 "the Eastern Extension Australasia and China Telegraph Company"를 흡수; "it was decided in 1928 to merge the communications methods of the British Empire into one operating company", 처음에는 Imperial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Ltd, 1934년부터 "Cable and Wireless Limited"; 1947년 국유화. ↩

7. Chiang Hai Ding, "The Early Shipping Conference System of Singapore, 1897–1911",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10, no. 1, 1969년 1월(주, cambridge.org): 귀항 무역을 하는 수출입 회사의 수가 1897년 20개에서 1908년 60개로 증가(주 47). ↩

8.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Singapore*, "Colonial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전신 서비스는 1870년 싱가포르에 도달; 싱가포르 내 전화 서비스는 "was installed in 1879 and extended to Johore in 1882"; Ulrich Speidel, "A short history of Singapore's role in the cable world", APNIC Blog, 2022년 9월 12일: 1871년을 "Singapore's inauguration as a cable hub, a role it hasn't quite relinquished ever since"로 표현.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